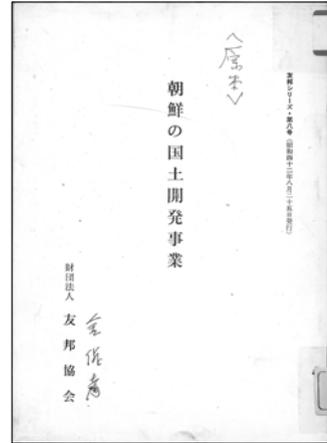


④ 朝鮮の國土開發事業 조선의 국토개발사업

1967년 / 우방시리즈 8호 / 우방협회(友邦協會) / 86면 / 02.10-08 조 1967

1967년 8월 25일 ‘우방(友邦)시리즈’ 제8호로
간행했다. ‘우방협회(友邦協會)’란 식민
지 통치시대 조선총독부에 근무하던 사람들의 친목단체
인데 해방 후 동경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. 총 86면의
이 책자는 1929년의 『朝鮮土木事業誌(조선토목사업지)』



이후 1945년 해방 당시까지 우리나라 토목사업의 기록이란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
라 할 수 있다. 이 책은 구체적인 기록과 함께 각 분야의 회고담도 담고 있다.

경상북도에서는 服部(햇도리)라는 헌병대장이 있어 부역으로 많은 도로를 건설했다.
대구~경주간 도로는 거의 일직선이었는데 주민들은 이것을 ‘햇도리 도로’라고 불렀다.
조선의 도로에는 ‘洗越(아라이고시)’이라는 독특한 공법이 있었다. 교량이 가설되어 있
지 않은 하천에 도로폭만큼 콘크리트를 쳐놓고 차들은 이 위를 통행한다. 하천 개수가
되기 전에는 다리를 건설할 수가 없다. 왜냐하면 제방의 위치가 결정되지 않았고 교량의
길어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. 결국 과도기적인 공법이었는데 이것을 ‘아라이고시’라
고 불렀다. 이 아라이고시의 한가운데에는 암거(暗渠)가 있어 평상시의 물은 이곳을 통
해 빠져나간다.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 도처에서 ‘아라
이고시’를 볼 수 있었다.

1925년의 이른바 을축년 대홍수는 홍수기록시설을 설치한 이래 가장 큰 홍수였다.

이 해 강우전선이 7월 초순부터 9월 초순까지 두 달 동안 남북으로 오락가락하면서 전국 하천을 4번이나 강타했다. 특히 7월 18일의 한강 대홍수는 16일~18일의 사흘 간에 650mm의 우량을 기록하였으니 집중호우의 정도를 짐작할 만하다. 이때 한강의 수위는 12.74m를 기록했는데 지금까지 이 기록을 깬 사례는 별로 없다.

이 홍수로 피해가 가장 심했던 것은 낙동강과 한강이었다. 이때 서울은 용산 철도관사(표고 약 23m)의 1층 천장까지 물이 찼을 뿐 아니라 서울역 광장까지 침수되었다. 이 당시 서울 인구는 30만이었다.

이 책에는 식민통치기간, 즉 1911~1945년까지의 투자액도 기록되어 있다.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.

- 총투자액 : 70~80억 엔
- 공공투자 : 약 28억 엔
 - 도로 : 2억 1천만 엔(23,678km의 도로건설)
 - 철도 : 20억 엔(7,800km의 철도건설)
 - 치수 : 2억 7천만 엔
 - 항만 : 38개 항(2,615만 톤의 하역능력 보유)
 - 도시개발 : 38개 도시